

# 백운산권역 광양 관광거점 육성한다

###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2032년까지 3단계 추진전략 생태관광 조성 등 15개 사업



오는 2032년까지 백운산권역을 도선국사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광양시 제공>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뼈대를 세운 도선국사의 흔적이 남은 광양 백운산권역이 오는 2032년까지 광양의 관광 거점으로 거듭난다.

광양시는 지난 13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는 관계 부서장, 주민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선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봉강면·옥룡면 등 백운산권역에 흩어져 있는 유·무형 도선국사 특화 소재를 연계해 생태관광·광역관광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연구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맡았다.

연구 용역에서는 핵심 관광 요소를 개발하고, 관광거점시설 구축, 광역권 관광 상품화 등 총 3단계에 걸친 장기 추진전략을 세웠다.

전략별 구상 사업은 총 15건이다.

추진 주제, 방식, 절차 등에 따라 올해부터 2032년까지 단계별로 설계했다.

광양시는 조성 사업에 약 2290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1단계 사업에는 6개 사업이 포함됐다.

동백 정원을 조성하고, 도선국사를 인물 지원화하고 그가 머무른 흔적을 성지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단계(-2029년)에서는 도선국사마을 교류체험센터, 친환경 광양 백운열차, 백운산 구름길 등 관광거점 등 기초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5개 사업이 추진된다.

2032년 마무리하는 3단계에서는 글로벌 풍수마을, 힐링아트 박물관, 탄소제로 스마트 모빌리티, 도선국사 생애주기 광역사업 등 4개 사업을 벌인다.

광양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주제와 절차 등을 정립하고,

전남도·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기본계획을 듣고 의견을 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백운산권은 옥룡사지, 선각국사 도선, 동백나무숲,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천년의 기와 정신이 흐르는 생태·역사 공간으로 웰니스와 힐링을 추구하는 관광을 주도할 핵심 관광지라며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장착한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를 차질 없이 완성해 섬진강권·구봉산권과 함께 남해안 남중권 핵심 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영산강 자전거길 명품 코스로"

### 만봉천~양암바위 구간 개선 나주시 17일 시민설명회

나주시가 전국의 라이더들에게 사랑받는 영산강 자전거길을 명품 코스로 개선한다.

나주시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영강동 어울림센터에서 '만봉천 영산강 합류지점-양암바위' 일원까지 조성 중인 자전거길 개선 공사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만봉천 자전거길 개선공사는 기존 양암바위 구간의 급경사지를 우회해 새로운 길을 놓는 사업이다.

평탄한 강변을 따라 철구조물 교각을 세운 뒤 1.2km 길이의 자전거 데크길과 습터를 조성하는

공사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 3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다.

나주시는 설명회에서 자전거길 개선공사 중간 추진 상황을 설명·공유하고 자전거 동호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이날 청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은 향후 공사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시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며 "나주의 절경인 양암바위의 관광 가치를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자전거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해남군, 지역 농특산물 미국 판로 개척 '속도'

### LA한인축제 4개 업체 판촉행사

해남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미국 판로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LA한인축제 기간 중 12일부터 15일까지 농식품 판촉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LA한인축제는 미주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최대축제로, 올해는 4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처음으로 단독부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판매 활동을 갖고 있다.

해남군 참여업체는 이용식품과 해남에다녔습니다, 온드림푸드, 성진 등 4개 업체이다. 이들 업체는 참기름, 된장, 고추장, 아이스군고구마, 김치, 고춧가루 등 해남의 대표 농식품을 판매했고 있다.

해남군은 이번 LA한인축제 기간동안 소비자

선호도를 포함한 미국 시장조사를 실시해 내년 판매전략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쏘마 USA 오프라인마켓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겨냥한 해남 특판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9월 명현관 군수가 미국 방문 기간 중 해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업체 방문과 수출 상담을 통해 미국 수출의 물꼬를 튼 이후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에는 LA한인축제 2개소에서 판촉행사를 열어 한눈에반한쌀, 김, 고구마말랭이 등을 판매해 1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LA한인축제를 통해 현지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 수출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미국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여수만 르네상스 밀그림 그릴 시민참여연구단 본격 활동

### 공개 모집 41명 위촉 발대식 연구용역 설명·분과별 회의



여수시(시장 정기명·앞줄 가운데)가 지난 12일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시민참여연구단 발대식'을 열고 위촉장을 받은 41명의 연구단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만의 부흥(르네상스) 밀그림을 그릴 시민참여연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여수시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시민참여연구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단은 여자만, 장수만, 기막만, 여수해만, 광양만 등 5개(만) 분과로 나뉘었으며, 모두 41명이 참여한다.

여수시는 지난달부터 연구단 공개 모집을 벌여 읍·면·동 추천을 통해 41명의 연구단을 꾸렸다.

연구용역은 ㈜글로벌엔로컬브레인파크가 맡았다.

여수시는 이날 시민참여연구단에 위촉장을 주고, 용역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들은 뒤 분과별 회의를 했다.

시민참여연구단은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을 마무리하는 내년 5월까지 활동한다.

여수만 부흥을 위한 미래상과 발전 전략을 발굴

하고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여수시는 시민참여연구단 외에도 17명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6급 팀장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3개 모임은 앞으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수시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고자 한다"며 "여수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민참여연구단의 참신한 발상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완도군,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25명 지원

### 전남 최다... 지난해보다 11명 증가 최장 3년 월 최대 110만원 지원금

완도군이 해양수산부의 '2024년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했다.

'청년 어촌정착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 지역과 청년의 상생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내년 사업 대상자는 전국 227명으로, 완도군은 지난해보다 11명 증가한 25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수산업 경영(독립)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이다.

정착 지원금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수산업 경영비와 여가 가능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11월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2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청년들의 어촌정착 지원과 어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릉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